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가르치셨고, 결국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조금 나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 명절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사는 가정은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말할 때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 삼으며,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하신 후, 그 기억 위에 새로운 결단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기억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과 선택, 관계와 미래를 이끌어 가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 가정예배가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믿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 384장 ————— 다같이

1.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 운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사회자

1.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새해에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일에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2. 부모는 자녀를 더욱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형제의 우애를 지켜갑시다.

2026

설날 가정예배



순천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순서

사회: 가족 대표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 310장 ——— 다같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 ——— 가족중

은혜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 되시는 선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가정,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룩의 길을 선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신명기 8장 2~3절 ——— 다같이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교 ———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 사회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은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정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삶의 방향을 점검할 여유가 없지만, 명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지난 길을 돌아보게 하시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은 실수로 들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풍요보다 부족함이 많았고, 안정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난 한 해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마음을 무겁게 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고생 자체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억은 원망을 멈추게 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설 명절은 그 기억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냈고, 말씀은 그 한계를 붙들어 주었습니다.